

일본차문화 입문

박민정 | 일본차문화연구자



5

일본차문화 입문

박민정 일본차문화연구자

I

일본다도의 개요

일본의 다도는 '말차(抹茶)다도'와 '전차(煎茶)다도'가 있습니다. 전차는 녹차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거품을 내거나 저어서 마시는 예법이며, 후자는 녹차 잎을 다관에 넣고 뜨거운 물로 우려 마시는 예법의 다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다도'라고 하면 전자인 '말차다도'를 일컫습니다.

일본의 말차다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센노 리큐(千利休, 1522-1591)'에 의해 새로운 미학인 '와비차(侘茶)'로서 대성하였습니다. 와비차는 '다회(茶會)'라는 형식을 통하여 차의 의학적·수행적·철학적·예술적·문학적·의식주의 생활 문화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와비차의 미의식으로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다회는 일본의 독특한 차문화입니다. 다회는 차와 과자만을 내는 간략한 형태의 다회와, '가이세키(懷石)'라는 소박한 식사와 함께 차를 대접하는 정식다회인 '다사(茶事)',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회에 임하는 주인은 '一期一會(일생에 단 한번 밖에 없는 만남)'의 정신으로 다회의 테마를 정하고, 테마에 어울리는 계절 음식과 다화(茶花), 차도구를 준비하여 손님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손님 역시 같은 일기일회의 마음가짐으로 주인이 준비한 다회를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다회에 임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주객의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차를 통해서 마음수행을 해 나가며 또 차를 표현하고 완성해 나갈 때, 단순히 '차'라

고 하지 않고 ‘다도’라고 일컬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차의 철학자 쿠라사와 유키히로 교수는 저서 <<예도의 철학>>에서, ‘다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茶道란 차를 통해서 지고지심한 마음의 경지로 이르는 길이며 동시에 지고지심한 마음의 경지에서 다시 차로 나가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류의 차문화가 신농의 해독차로부터 시작하여 건강과 장수의 선약으로서의 차, 신불에게 올리는 공양차, 갈증해소로서의 음료차, 사교문화로서의 사교차 등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음수행과 같이 하는 다도문화는 동양의 고도의 정신문화에서 피어난 동양문화의 꽃이라도 하겠습니니다.

Ⅱ 일본다도의 역사

1. 차의 전래[나라(奈良)시대-헤이안(平安)시대]

일본에 차가 전래된 것은 견당사(遣唐使)와 중국 유학승에 의해 전래되어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시 당(唐)의 차는 ‘단차(團茶)’를 우려 마시는 것으로, 이때는 아직 말차 풍습이 없었습니다. 804년 불교를 공부한 에이쥬(永忠, 743-816) 유학승이 차씨를 가져와 히에잔(比叡山)에 심은 것이 차의 시작으로 주로 승려와 귀족들 사이에서 차를 마셨는데, 견당사 폐지(894)이후 차 마시는 풍습은 일시 단절됩니다.

2. 차의 보급 [헤이안(平安)시대-카마쿠라(鎌倉)시대]

헤이안시대 말기에 다시 송과의 왕래가 시작되고, 유학승 에이사이(榮西, 1141-1215)는 차 마시는 법을 전래해 왔는데, 이 때 송의 차는 지금과 거의 비슷한 말차를 타서 마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가마쿠라막부 3대 장군인 미나모토노 사네토모(源實朝, 1192-1219)의 숙취를 차로서 치료하고, 차를 만병통치의 묘약으로서 ‘긱다양생기(喫茶養生記)’에 적고 있습니다. 사네토모가 건강을 위해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이 차츰 선승에서 무사로 차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며 그에 따라 차에 사용되는 다도구도 송으로부터 다량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3. 다도의 시작과 계승 [무로마치(室町)시대]

무로마치시대에는 무가와 상인사이에 투차(鬪茶)등 사치스러운 차가 유행했습니다. 화려한 식사 후에 몇 종류의 차를 마신 다음 차의 생산지를 알아 맞추고 경품을 받는 투차놀이는 법률적 단속을 받기도 합니다. 한편 히가시야마(東山)문화를 꽃피운 8대 장군 아시카가 요시

마사(足利義政, 1436-1490)는 정치보다는 풍류를 즐겨, 초암(草庵)다실을 지어 와비차를 시작한 무라타 슈코(村田珠光, 1432-1502)를 소개받습니다.

와비차의 시조인 슈코는 ‘다도의 본질은 선종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넓은 방에서 하던 화려한 차에서, 은각사(銀閣寺)의 4장 반 다다미 다실에서 선승의 목적을 걸어 두고 다선일미의 차를 추구한 다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슈코의 와비차는 와비차의 중흥조로 알려진 다케노 조오(武野紹鷗, 1502-1555)로 이어집니다. 조오는 슈코의 제자들에게서 다도를 배워 초암차를 계승하였는데, 그의 다실에는 시골집을 모방한 이토리(화로)를 만들어 더욱 간소한 와비차로 이어갑니다. 한편 오랫동안 렌가시로 활동한 조오는 렌가의 사상을 와비차에 도입하여 한층 일본적인 다도를 만들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4. 다도의 성립[아즈치·모모야마(安土・桃山)시대]

조오의 와비차를 이어받아 다도를 확립한 것은 센노 리큐(千利休, 1522-1591)입니다. 리큐는 17살이 되던 해 처음 기타무키 도친(北向道陳, 1504-1562)에게 서원차를 배운 후, 조오에게 입문하여 초암차를 배웠습니다. 리큐가 스승 조오에게 입문할 때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조오는 리큐를 시험하기 위해 정원청소를 명했습니다. 정원은 구석구석 깨끗하여 청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큐가 갑자기 나무를 흔들어 일부러 나뭇잎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를 본 조오는 리큐의 뛰어난 감성에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위의 일화에서와 같이 자연스런 정취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리큐의 미의식은 다도 뿐만이 아니라 다도구의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고, 도예를 비롯하여 미술 등 새로운 와비차 미학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리큐는 최고의 권력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7-1598)와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에게 다도를 가르치는 다도사범이었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통일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다도를 이용하였고 리큐도 이에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전장을 나갈 때마다 다회를 열어 짧은 시간동안이라도 리큐의 차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리큐와 히데요시와의 관계는, 대덕사(大徳寺) 산문(山門:金毛閣)에 만든 리큐의 목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악화됩니다. 결국 히데요시는 리큐에게 할복을 명하는데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한 히데요시가 정신적으로 리큐에게 강한 열등의식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5. 센케(千家)의 성립과 그 후의 다도 [에도(江戸)시대-현대]

리큐의 사후 리큐의 다도는 리큐의 일곱 제자들과 리큐의 자손에 의해 이어집니다. 에도시대가 되면, 다도는 다이묘(大名)와 무사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을 합니다. 이를 ‘다이묘차’라고 합니다. 한편 리큐의 자손에 의해 이어진 다도는, 리큐의 손자인 소탄(宗旦, 1578—1658)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됩니다. 소탄은 어린 나이에 조부인 리큐의 죽음을 보고 권력을 멀리하며 대덕사에서 수행한 선불교를 바탕으로 ‘茶禪一味’라는 와비차를 철저하게 일관해 갑니다.

소탄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차남 宗守에게 간큐안(官休庵)다실을 주어 무샤노코지 센케(武者小路千家)를, 3남 宗左에게 후신안(不審庵)다실을 주어 오모테센케(表千家)를, 4남 宗室에게는 곤니치안(今日庵)다실을 주어 우라센케(裏千家)로, 산센케(三千家)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특히, 곤니치안 다실은 1조다이메(다다미한장과 다이메, 合目 : 온 다다미에서 사분의1을 뺀 다다미)로서, 더 이상 작게는 만들 수 없는 와비차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라센케를 잇고 있는 4남 宗室에게 주었습니다. 현재 우라센케는 다도교육을 통하여 일본의 전통문화와 청소년의 인격형성을 위해 학교다도의 보급 뿐 만 아니라 ‘차 한잔을 통한 세계평화’라는 이상을 목표로 세계 각국에 다도의 소개와 보급을 힘쓰고 있습니다.

Ⅲ 다도의 정신(四規七則)

1. 四規 : 리큐의 다도 정신을 네 글자로 집약한 것입니다.

和 서로 사이좋게 화합하고
 敬 서로 존경하며 스스로 삼가며
 清 청정한 마음을 갖도록 힘쓰며
 寂 어떤 경우에도 동하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2. 七則 : 리큐의 일곱 가지 차의 가르침을 나타낸 것입니다.

- (1) 차는 마시기 좋게 내며
- (2) 숯은 찻물이 잘 끓도록 피우고
- (3) 꽃은 들판에 피어 있는 것처럼
- (4)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게
- (5)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준비하고
- (6)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도 우산을 준비하며

(7) 자리를 같이 한 손님에게 마음의 배려를 잊지 않습니다.

위 칠칙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리큐의 제자가, “다도에서 중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리큐는 위의 칠칙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대답을 들은 제자가 “그런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하고 불만스럽게 말하자, 리큐는 “좋다. 그렇다면 내가 말한 대로 네가 차를 할 수 있다면 내가 너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하고자 하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평소부터 간단한 것이라도 실행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 一期一会

일생에 단 한 번 밖에 없는 만남이란 뜻으로 다회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절대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므로, 오늘의 다회를 생애에 단 한 번 밖에 없는 것으로 명심하고 주인과 손님이 성심성의를 다해 다회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4. 茶禪一味

다도와 선의 가르침의 길은 같다는 뜻입니다. 다도가 단지 미술품을 감상하고 아름답게 차를 마시는 예법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인간형성의 길인 다도가 되어야 하는데, 다도는 선의 가르침에 그 근본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화경청적의 다도의 정신이 선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깊이 뿌리를 갖고 있는 것도 바로 다선일미를 지향하는 다도의 정신세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IV 일본의 대표적인 다서

1. 무라타 슈코의 <<마음의 글>>

이 길에서 가장 나쁜 것은 아만과 아집이다. 능한 자를 시기하고 초심자를 깔보는 일은 좋지 못한 일이다. 능한 자를 가까이 사귀어 자기의 미숙함을 호소하여 가르침을 받고, 또 초심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키워야 한다. 이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和漢의 경지를 조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 차고 시든 느낌을 와비차의 경지라 하여, 초심자가 비젠 도자기나 혹은 시가라키 도자기 등을 사용하면서 남에게 마치 와비차인인양 보이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시든 느낌의 와비라 함은 좋은 도구를 가지고 그 맛을 깊이 깨달고 깊은 본심에서 두고두고 와비의 경지의 참뜻을 즐기는 것이다. 와비의 경지에 이르기 전에 다도구에 너무 얽매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능숙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미흡함을 깨닫는 겸허함이 중요하다.

스스로 아집에 빠져서 있는 일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 길을 가려면 아집이 없어서는 안 된다. 차의 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마음의 스승이 되어라. 마음을 스승으로 해서는 안된다.
라고 고인에게서도 말씀하셨다.

2. 다케노 조오의 <<와비의 글>>

‘와비’란 말은, 선인들도 여러 노래에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는 정직하고 깊이 삼가 하여 행동하며 교만하지 않는 모습을 ‘와비’라고 한다. 일 년 중에 음력 시월이야말로 와비라고 할 수 있다. 후지와라 테이카의 와카에도

거짓이 없는 세상이어라 시월아
그 누가 진정으로 시월의 비에 젖고 싶지 않겠는가

테이카의 노래는 역시 훌륭하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역시 테이카는 잘 표현해 내었다.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다.

3. 야마노우에노소지의 <<산상종이기>>

(1) 다인의 분류

① 다이묘 다인(大名茶の湯, 다이묘 차노유샤)

고금의 당물(唐物)을 모아 명물을 장식하는 데만 오로지 열중하는 다인을 다이묘 다인이라고 한다.

② 직업적인 다인(茶の湯者, 차노유샤)

다도구에 대한 감정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차의 기량도 뛰어나고 다도 선생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다인을 차노유샤라고 한다.

③ 와비다인 (侘び數寄, 와비스키)

명물도구 하나 없지만 첫째 가슴속의 각오가 단단하며, 둘째 창의성이 있고, 셋째 차의 기

량도 갖추고 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이를 ‘와비다인’이라고 한다.

④ 명인(名人)

당물의 명물도구를 소지하고, 다도구의 감정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차의 기량도 뛰어나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차 한 길로만 정진해 나아가고자 하는 깊은 뜻을 품은 자를 명인이라고 한다.

(2) 다인의 각오십체(覺悟十体)

- ① 걸모습은 소박하고 수수하게하나 내면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처신한다.
- ② 모든 일에 소양을 깊게 하고 세심한 배려를 한다.
- ③ 마음속에서부터 맑아야 한다.
- ④ 다회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지만, 새벽다회가 있는 아침에는 인시(새벽4시)부터 화로를 손질하여 솥을 피워 차술을 올려놓아야 한다.
- ⑤ 음주와 호색을 삼가야 한다.
- ⑥ 겨울과 봄에는 눈이 내린 설경을 떠올리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회를 연다. 또 여름과 가을에는 저녁 무렵부터 밤까지 다회를 여는 것이 좋다. 다만, 가을 달밤에는 비록 혼자 일지라도 깊은 밤까지 차를 하는 것이 좋다.
- ⑦ 자신보다 뛰어난 다인들과 친분을 가지고 사귀는 것이 좋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다인의 사람됨을 잘 알고 난 다음 차를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⑧ 다회를 할 때 필요한 것은 다실과 정원이다. 주위에 송죽과 나무의 모습이 중하며, 야외에서 차를 즐길 때는 다다미를 직접 지면에 깔 수 있는 곳이 좋다.
- ⑨ 좋은 다도구를 가지는 일이 중요하다. 단 좋은 다도구의 의미는 슈코나 인세쓰, 조오, 리큐가 마음으로 선호했던 와비 다도구를 말한다.
- ⑩ 와비 다인은 모든 길에 뛰어나지 않은 것 또한 능력이라고 할 것이다. 조오 가 제자에게 인간의 수명이 60세라고 한다면 실제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는 겨우 20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차의 길에 끊임없이 정진을 하여도 좀처럼 경지에 들기는 어렵다. 하물며 여러 길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미숙한 자로 머물고 말 것이다. 다인은 다른 면에서는 무능한 편이 낫겠지만, 단, 서(書)와 문학은 별개로 항상 가까이 하며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다도의 길에서 허락된 것이다.

(3) 다도의 수행

공자는 가라사대, 나는 15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에 입신하여 마흔에 불혹하며 쉰이 되어 지천명하였다. 육십 나이에 이순하였고 일흔에 마음속의 욕심대로 해도 도리에 어긋나

지 않더라. 이 일을 다도의 세계에 맞추어 보면 15세부터 30세까지는 모두 스승을 모시고 가르침대로 따른다. 30세부터 40세까지는 자신의 사려분별을 발휘하여 데마에 수업, 예의작법, 폭넓은 마음, 그리고 스키에 관한 이야기 등은 스승에게서 들은 바대로 전한다. 새로운 시도나 다도의 모습은 스스로하기 나름이다. 단, 열 가지 가운데 다섯 가지까지만 자신이 생각한대로 밀고 나간다. 이것이 40세가 되면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50세까지의 10년간은 스승이 서쪽이라고 하면 자기는 동쪽이라고 하면서 정반대의 시도를 한다. 그러는 동안 독자적인 양식이 생산되며 명인이라는 높은 평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도의 모습도 한층 젊어지게 될 것이다. 그 후의 10년간인 60세까지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한 그릇의 물을 다른 그릇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담아내듯이 한 치의 틀림도 없이 스승과 같은 것을 하게 된다. 공자의 '이순'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10가지 항목에 적혀 있듯이, 모든 예도의 명인의 행동을 본보기로 삼는다는 것이다. 또 '70세에는 마음속의 욕심을 따라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더라.'의 의미는 쉐 리큐의 지금의 풍채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은 명인 리큐 이외는 무용한 것이다. 나이가 60세가 되어야 비로소 적당한 모양새를 이룬다. 다케노 조오는 54세에 세상을 떠났다.

4. <<남방록>>

어느 날 리큐가 대덕사의 집운암에서 다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큐는 “다도의 근본은 다이스(대자)에 있지만, 와비차의 마음을 닦으려고 한다면 초암 다실이 가장 적격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뜻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리큐는 “초암에서의 차는 무엇보다 불교수행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차 수행을 하여 깨달음을 열어가는 것이다. 집을 호화롭게 하고 진수성찬을 즐기는 것은 속세의 일이다. 집은 비가 새지 않을 정도이면 좋고, 식사도 허기를 달랠 정도이면 충분하다는 마음가짐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동시에 와비차 본래의 의미이기도 하다. 스스로 물을 길어다 숯불을 피워 찻물을 끓이고 차를 내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차를 돌리고 자신도 마신다. 또 꽃을 꽃고 향을 피우는 일도 모두 선인의 수행을 따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고 하겠다. 이보다 더 자세한 것은 본인이 깨달은 뒤에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5. 이이나오스케의 <<다탕일회집>>

이 책은 다회가 열리고 마칠 때까지 주인과 손님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상세히 적어 놓은 책으로 책제목은 일회집이라고 합니다. 일회라고 하는 말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원래 다도의 교류는 일기일회로서 같은 주객이 여러 번 같은 다회에서 만나더라도 오늘 이 자리의 다회는 두 번 다시없는, 자신의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은 만사에 세심한 마음의 배려를 하며, 작은 실수도 하지 않도록 마음을 쓰며, 손님도 마찬가지로

로 이 다회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주인의 마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히 느끼며 마음의 교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기일회라고 합니다. 주객이 가벼이 여기는 다회를 결코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회집이 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가타키리 세키슈도 다른 사람의 다회를 흉내 내지 않도록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다회마다 다른 것을 준비하기 위해 장식을 바꾸고, 다도 작법을 연구하고, 오로지 손님에게 진기한 것만을 보이고자 하는 마음은 다도를 놀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물, 장식 등을 바꾸면 저절로 주객의 마음이 달라지며, 다회에서의 대화도 매끄러워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따라 합니다. 그러나 다도를 추구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훌륭한 다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남보 소케가 스승 리큐에게 다회기를 적어서 확인을 부탁했을 때, 리큐는 ‘다회를 보고 도구가 바뀐 것만을 적어 온 것은 납득할 수가 없으며, 만나서 그 생각을 직접 듣고 싶구나, 매일 같은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마음의 움직임을 변화시키면 다회는 얼마든지 새로워진다. 동작, 장식, 도구의 구성이 진기한 것은 좋지 않은 다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교훈입니다. 늘 같은 도구를 사용하며 장식과 테마까지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다도의 바른 길입니다.

6. 오카쿠라 텐신의 <<차의 책>>

인간성의 차 한 잔, 차란 무엇인가

차라는 것은 원래 약으로 이용되었으나 이후 취미로 마시는 음료로 보편화되어 중국에서는 8세기에 이미 차 마시는 일이 일종의 고상한 놀이가 되고, 운문문학인 시가와 같은 영역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는 15세기에 이르러 일종의 심미주의적 종교인 다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다도는 소박한 일상생활 속에 있는 일을 찾아내고, 존경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예법인 것입니다. 이는 순수한 자기와 타인과의 조화, 서로 자비 속에 우러나는 신비한 힘, 낭만적인 사회 질서관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또 다도는 ‘불완전성’이라는 것을 존중합니다. 여기에는 다도의 본질이 인생이라는 깨닫기 어려운 존재 속에 있고 가능한 것을 해 내고자 하는 선한 시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도의 철학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심미주의가 아닙니다. 다도는 윤리와 종교가 융합되어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인간과 자연과의 총체를 볼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도는 매우 엄격하게 청결을 말하기 때문에 위생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값비싼

것보다도 간소한 것에서 편안함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경제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주에 대한 인간의 자세를 정의한다는 점에서 정신기하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다도는 주객의 신분 상하를 막론하고 모든 일을 풍류의 도는 걷는 귀족으로 대우하므로 동양적인 민주주의 정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도와 관련된 에피소드

1. 낙엽과 관련된 에피소드

어느 날 리큐가 다사에 초대를 받았던 일입니다. 마침 그날은 바람이 강하고 로지(다실정원)에 들어가자 낙엽이 쌓여 있어 가는 길마다 마치 산중에 들어가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리큐는 ‘매우 재미있는 풍경이다. 그러나 주인이 이 낙엽들을 깨끗이 치울 것이 틀림없어.’라고 생각하고 가이세키 식사를 하고 잠시 쉬는 동안에 역시나 정원은 깨끗이 청소를 해 놓아 낙엽 한 장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리큐는 ‘로지 청소란, 아침다회 손님이 올 때 새벽 청소를 하고, 낮 다회 손님이 올 때에는 아침에 해 두는 것이다. 그 후에 낙엽이 쌓이더라도 그대로 두는 것이 풍경이 있어 좋은 것이다.’라고 함께 있었던 손님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2. 청결이 제일 중요하지

어느 시골 다인이 리큐에게 ‘아무 거라도 좋으니 다도구를 사 달라.’라고 많은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 돈을 받은 리큐는 그 액수만큼의 흰 행주를 사서 보냈습니다. 리큐가 보내온 보자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풀어 본 다인은 흰 행주만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고는 동봉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와비차는 깨끗한 행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라고 리큐의 말이 쓰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3. 천하제일의 데마에

리큐가 우지에 있는 다인의 차회에 초대를 받고 몇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다실을 방문했습니다. 우지의 다인은 매우 기뻐하며, 리큐 일행을 다실로 안내하고 직접 차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긴장한 나머지 데마에의 손이 떨려 나즈메 위의 차시를 떨어뜨리고, 차 선을 넘어뜨리며, 대자의 물을 떨어뜨리는 등 많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리큐의 제자들은 서로 눈짓으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회가 끝나자 리큐는 ‘오늘 주인의 데마에는 천하제일이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은 이를 이상이 여겨 ‘어찌하여 그토

록 많은 실수를 한 테마에를 천하제일이라 하십니까?’라고 묻자 리큐는 모두를 향해서 ‘오늘 다회의 주인은 우리들에게 가장 맛있는 차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실수를 마음에 담을 것이 아니라, 단지 정성껏 차를 내었던 마음을 가장 소중히 생각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4. 교토의 다인 헤치칸

교토의 야마시나라는 곳에 헤치칸이라는 좀 특이한 다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손잡이가 달인 술 하나로 매일 아침 국과 밥을 짓고 식사가 끝나면 술을 모래로 씻은 다음 산 아래의 시냇물을 길어다 차를 즐겼던 다인입니다.

특이한 다인이라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자 리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리큐가 친구를 데리고 헤치칸 다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 밖에는 돌로 쌓은 우물이 있었는데, 그곳은 많은 인적과 말들이 지나다니는 길옆에 있어 먼지로 심하게 더럽혀져 있었다. 그것을 보고 리큐가 ‘이 물로는 도저히 차를 마실 수 없겠다. 그만, 돌아가자’라는 하자, 안에서 듣고 있던 헤치칸이 ‘차를 끓일 물은 대나무 대롱으로 받고 있는데, 그래도 돌아가시려 합니까?’라고 하자 리큐일행은 다시 돌아와 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화로 리큐와 헤치칸은 더욱 친밀해졌고, 때때로 다사에 초대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리큐가 다사 시간에 맞추어 헤치칸 집을 찾아가자, 로지 앞에 구덩이를 파서 그 위에 대나무로 엮은 판을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리큐는 일부러 그곳을 밟아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 밑바닥은 흙탕물로 잠겨 있어서 결국 옷과 손발이 모두 더럽혀 지고 말았습니다.

헤치칸이 몹시 놀란 표정으로 집에서 뛰쳐나와 ‘큰일을 당하셨군요.’라며, 리큐를 위해 준비해 놓은 욕실로 안내를 했습니다. 얼룩을 없애고 목욕을 마친 리큐는 헤치칸이 곧바로 준비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상쾌한 기분으로 다실로 들어가서 차를 마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큐는 기분 좋게 차를 마시고 헤치칸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 일화를 들은 사람들은 ‘구덩이가 있는 것을 알면서 왜 일부러 떨어진 것입니까?’라고 묻자, 리큐는 ‘나는 헤치칸의 계획을 눈치 채고 있었다. 그런데 구멍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주인이 모처럼 준비한 정성을 허사로 만들게 되는 일이 된다. 그 구덩이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날의 다사는 흥미롭고 일생에 남을 좋은 기억이 된 것이다. 다도란 모름지기 손님과 주인이 서로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 나팔꽃

어느 날 리큐의 집 정원에 아름다운 나팔꽃이 피어 있다는 소문이 히데요시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히데요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 리큐의 아침다사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정원에는 한 송이의 나팔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히데요시는 이를 꽤심히 여겼습니다. 히데요시가 오기 전날 리큐가 나팔꽃을 모두 베어 없애 버렸기 때문입니다.

히데요시는 분한 마음을 다스리며 다실로 들어가 도코노마를 보았는데, 그곳에 색깔도 선명한 단 한송이의 나팔꽃이 활짝 웃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데요시를 비롯한 부하들은 모두 감동하였고 리큐는 히데요시로부터 격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VI 다사(茶事)

‘다사’란 초암다실에서 계절을 담은 소박한 식사와 차로서 주객이 일기일회의 정신적 미적 교감을 이루는 정식 찻자리입니다. 이때 손님 수는 5명을 넘지 않으며, 다회는 4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 다사의 구성

다사를 준비할 때에는 먼저 다회의 테마를 결정합니다. 그 후 손님의 구성과 장소, 다도구의 구성, 다회일자를 정합니다.

다회는 初座와 後座, 전후 2부로 나누어지는데, 1부 初座에서는 차를 맛있게 마시기 위한 식사가 마련되며 2부 後座에서 그날의 주인공인 찻자리가 마련됩니다. 중간에 휴식시간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진행과정과 시간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初座

- ① 대기와 입실 (20분)
- ② 가이세키 식사 (1시간)
- ③ 숯불피우기 (20분)

(2) 중간휴식 (20분)

(3) 後座

- ① 진한차 (30분)
- ② 숯불 고르기 (20분)
- ③ 연한차 (30분)
- ④ 퇴실 (10분)
- ⑤ 예비시간 (30분)

2. 주인으로서 준비

(1) 初座

다회의 테마를 나타내는 족자를 도코노마(床の間)에 걸어둡니다. 이 때 족자는 주로 수행 선승의 목적이거나 다도종장의 목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계절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소박한 식사인 회석요리를 대접합니다. 찻물이 잘 끓도록 숯을 피운 다음, 은은한 향을 피워 놓습니다.

(2) 중간휴식

손님이 중간휴식을 위해 다실 정원에 나갔을 때 상쾌한 느낌이 들도록 미리 정원에 물을 뿌려 둡니다.

(3) 後座

도코노마에는 족자 대신에 꽃을 준비하여 손님을 맞이합니다. 진한차와 연한차를 대접합니다. 진한차는 죽처럼 걸쭉한 차로, 한잔의 차를 돌려가며 다함께 마십니다. 연한차는 거품을 낸 차로 한잔 씩 한사람씩 마시는 차입니다. 연한차를 마시기 전에 먹는 가벼운 과자인 히가시는 차의 쓴 맛을 없애 주며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손님으로서의 준비와 매너

(1) 준비물

- ① 부채(扇子)
- ② 가이시(懷紙)
- ③ 고부쿠사(古袱紗)

- ④ 후쿠사(袱紗), 후쿠사바사미(袱紗挾み)
- ⑤ 차킨(茶巾), 차킨바사미(茶巾挾)
- ⑥ 갈아 신을 타비(足袋), 혹은 흰 양말
- ⑦ 소테오토시(袖落とし), 손수건 등

(2) 손님으로서 매너

- ① 다회시간을 반드시 지킵니다.
- ② 정식복장은 키모노이지만, 양장인 경우는 정장차림을 하며 여성은 무릎을 가리는 긴치마를 입습니다. 흰색 양말을 신습니다.
- ③ 소중한 다도구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반지, 시계, 펜던트 등의 장식품은 피합니다.
- ④ 긴 손톱과 매니큐어, 짙은 화장이나 향수는 피합니다.
- ⑤ 다실에서 잡담은 물론이며 정치나 경제, 종교, 남의 험담 등은 금물입니다.

4. 다회와 관련한 지식

(1) 다실(茶室)

다회가 열리는 다실은 속세를 떠난 청정무구한 별세계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다실의 구성은 실제로 차를 마시는 공간인 좁은 의미의 다실과 다실정원인 로지(路地), 그리고 식사와 차를 준비하는 미즈야(水屋)인 다실부엌까지 포함하여 다실이라고 합니다.

- ① 다실은 크기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눕니다.
 - 4조반 다실 : 다다미 4장반의 다실
 - 코마(小間) : ①보다 작은 다실
 - 히로마(廣間) : ①보다 큰 다실
- ② 계절에 따라서 두가지로 나눕니다.
 - 후로(風爐) : 다다미 위에 놓은 화로
 - 로(爐) : 다다미 아래에 사각으로 만든 화로
- ③ 로지(다실정원)에는 물이 담긴 그릇인 쓰쿠바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손님이 다실에 들어가기 전에 입과 손을 행구며 속세의 때를 씻어내는 곳입니다.
- ④ 도코노마(床の間) : 다실의 가장 권위 있는 공간으로 족자와 꽃 등을 장식합니다.
- ⑤ 니지리구치 : 초암다실에 손님이 들어가는 작은 출입구.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며 들어가면서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겸허하게 가집니다.
문의 크기는 사방 약 65센치 정도입니다.

(2) 테마에(点前)

차를 내는 작업인 행다를 말합니다. 테마에는 주인의 차수행과 마음이 몸과 동작으로 그대로 보여 짐으로 오랜 수련이 필요합니다. 또 다실의 크기, 다도구의 구성과 연출, 손님에 따라서 다양한 행다법이 있습니다.

(3) 다도구

다도구는 다회의 테마에 어울리도록 구성하여 연출합니다.

① 구성

- 족자, 화병, 화로, 가마, 화로병풍
- 다완, 나츠메, 차시, 차술, 퇴수기, 국자, 뚜껑받침
- 차건, 후쿠사

② 종류

중국다도구, 고려다도구, 일본다도구, 남방다도구

③ 다도구의 감상 (拝見)

다회의 주인공인 차가 담긴 차통과 차시등을 주인에게 요청하여 직접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시는 다회의 테마를 연상하게 하는 이름이 붙여져 다완과 함께 주객의 마음을 이어주는 주요한 다도구입니다.

VII 차 마시는 예법 (薄茶 : 연한차)

여기서는 세 분의 손님을 모신 자리에서 연한차를 마시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 (1) 첫 번째 손님은 차가 나오면, 찻그릇을 두 번째 손님 사이에 놓고, ‘먼저 차를 들겠다.’는 뜻으로 ‘오사키니(お先に)’ 라는 예를 표합니다.
- (2) 다음으로 찻그릇을 자기 무릎 앞에 놓고, 차를 내준 주인에게 ‘잘 마시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오테마에 초오다이 이타시마스(お点前ちょうだいいたします)’ 라고 인사를 합니다.
- (3) 다완(찻그릇)을 왼손 바닥 위에 올려놓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가볍게 다완을 들어 올려 예를 표합니다.
- (4) 다완에는 정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차를 드실 때는 다완의 정면을 피하기 위해, 시계방향인 오른쪽으로 두 번 정도 돌립니다.

- (5) 그리고 차를 마십니다.
- (6) 차를 다 마신 다음에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마신 흔적이 있는 곳, 즉 입술을 댄 자리를 닦습니다.
- (7) 마신 자국을 닦고 차가 묻은 손가락은, 품속에 넣어 둔 흰 종이 즉, '懷紙'에 닦습니다.
- (8) 다완을 다시 정면을 돌리기 위해, 이번에는 왼쪽으로 두 번 돌린 다음, 다완을 다다미 선 바깥에 놓고, 다완을 감상합니다.
- (9) 두 번째 손님이 차를 마실 때는, 첫 번째 손님사이에 다완을 놓은 다음, 뒤이어 마시겠다는 뜻으로 '오쇼오방 이타시마스(お相伴いたします)' 라고 예를 표합니다.
- (10) 그리고 세 번째 손님 사이에 다완을 놓고, '먼저 들겠다.'는 뜻의 '오사키니(お先に)' 의 예를 표합니다.
- (11) 다완을 다시 자기 정면에 놓고 '잘 마시겠습니다.'라는 '오테마에 초오다이 이타시마스(お点前ちょうだいいたします)' 라고 인사를 한 다음, 첫 번째 손님과 같은 방법으로 차를 마시고, 다완을 감상합니다.